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12, 마태복음 6:25-33에 대한 자세한 분석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세부 분석, 마태복음 6:25-33, 본문 개요, 문맥적 연결 및 논리적 레이블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개별 구절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두 번째 대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상세한 관찰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실제로 본문의 개요를 포함하는 상세한 분석 또는 사고 흐름입니다. 이는 구절의 개요를 설명하고 특히 문맥적 연결, 구조적 관계 및 논리적 레이블을 주목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맥적 연결, 구조적 관계, 논리적 레이블 또는 논리적 제목 등을 강조하는 구절의 개요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상세한 분석을 한다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구절과 직접적인 맥락의 관계에 관해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 종이에 해당 구절의 일반적인 구조를 기록해 두십시오. 주요 단위, 하위 단위 및 주요 구조적 관계를 기록하면서 구절 조사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식별된 첫 번째 주요 단위로 이동하여 주요 구분 및 하위 구분을 찾고 각 하위 구분을 점점 더 작고 보다 구체적인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논리적 레이블을 제안 및 할당하고, 구조적 관계를 식별하고, 상황별 연결을 기록합니다.

식별한 다른 주요 단위 각각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따르고 구절의 주요 통합 주제와 하위 주제를 기록하고 하위 주제가 주요 주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확장하거나 지원하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상세한 분석의

결과로 당신에게 떠오르는 주요 해석적 질문에 주목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부분에 대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장까지 했던 것처럼 세부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긴 구절을 작업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긴 구절에 대한 보다 선택적인 관찰입니다. 또한 그것은 특히 담론적 자료와 논리적 논증에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추적하고 생각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담론적 자료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이제 정말 상세한 분석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구절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의 주의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글쎄,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수명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라는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중 하나와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자, 다시 말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본문의 개요이므로 본문의 주요 단위인 본문의 전체 구조에 주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뒤로 물러서서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여기 문단이 권고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그가 초기 명령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명령으로 끝난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초기 명령으로 시작하여 최종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자료에서 그는 마지막 명령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명령으로 끝난다.

실제로 25절의 명령과 31절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명령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명령을 갖고 있으며 이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명확하게 쓰겠습니다.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와 최종 명령. 이제 여러분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이유가 뒤따르는 명령이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추가 명령이 뒤따를 때 결과에서 원인에서 결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권고적인 실질성이 포함되며, 그러면 입증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증하고, 이것이 35절, 25절의 명령을 실증하고, 이것이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마지막 명령을 초래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25절의 명령에서 그가 두 영역, 말하자면 두 영역에 관해 말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목하고,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몸을 입고, 입는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동일한 두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구절에서도 중간에 나오는 26절부터 30절까지의 구절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왜 이러한 명령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그는 실제로 그가 에서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언급한 각 영역에 대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25절과 31절부터 33절까지의 권고입니다.

생명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은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26절에 확장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어 앓고 거두지도 앓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당신이 입어야 할 몸에 대한 언급은 28절부터 30절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다시 결과로의 이동뿐 아니라 일반에서 특정으로 일반으로의 이동입니다. 그는 생명에 관한 염려, 곧 무엇을 먹고 마실지에 관한 이 문제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개한 다음 26절에서 그 내용을 확장합니다.

그는 여기 25절에서 일반적으로 염려, 몸에 관한 염려,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언급하고 28절부터 30절까지 그 측면을 확장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개요를 갖게 됩니다. 통로. 계속해서 25절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서론이로되 당분간은 지나치리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네가 입는 몸이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구절을 조사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절은 어떻게 분해되니까? 이 구절 내에서 중요한 단절은 어디에 있으며, 구절 전체에서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글썄요, 여기에는 실제로 두 개의 문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따라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주요 중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신의 생명,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에 대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수사적 질문의 형태인 두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질문이지만 실제 질문은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서 답을 구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 형식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음식 그 이상이죠? 그리고 몸은 옷 그 이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이 25절의 두 부분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시작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명령의 형태입니다.

권유하는 형식입니다. 필수사항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는 25a절의 권고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권고, 명령, 25a절과 25b절의 진술이 암시적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25a절의 권고를 입증할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몸은 의복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이 권고가 여기 25a절에 순종되어야 하는 이유를 25b절에서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권면적인 입증이 포함됩니다. 이제 권고 사항을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실제로 두 개의 영역, 즉 삶의 영역과 신체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가 더 나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잠시 멈춰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생명의 영역, 즉 무엇을 먹거나 마실지는 섭취와 섭취를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즉, 몸에 넣은 것, 몸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체 내부에 있으며 이는 논리적인 관찰인 반면, 당신이 입는 것은 신체 외부, 즉 신체 외부에 입는 것과 관련됩니다. 내적 욕구와 외적 신체적 욕구는 모두 완전하고, 총체적이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신체 내부, 신체 외부, 내부 요구, 외부 요구. 즉, 포괄적 범위, 모든 요구사항, 포괄적입니다. 이제 제가 말했듯이 25절은 25a절을 직설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대조의 반복에 따라 동일한 두 영역을 갖는 구조를 갖습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둘 이상이면 범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 다고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각각의 경우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범위의 대조입니다.

생명은 음식 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음식과 다릅니다. 신체는 의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복과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단계에서 조급한 해석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여기서의 실증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특히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해 앞서 말하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주의해야 합니다. ,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생명에게 음식을 공급하실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은 다소 큰 일이었으며, 무생물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시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위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을 것이다. 만들어진. 여기에는 실제 능력이 포함되지만 아마도 의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는 데

수고를 하셨다면, 이는 그가 헌신할 것이며, 헌신할 것이며, 기꺼이 의지할 것이며, 자신이 만든 생명을 위한 음식, 자신이 가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기꺼이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몸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하신 것이 오히려 큰 일이었으며, 몸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몸에 옷을 입히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몸을 창조하는 데 수고를 하셨다면, 이는 그분이 자신이 창조하신 몸을 돌보는 데 전념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 동사에 관해 한 마디만 더 하자면, 동사는 종종, 특히 동사의 형태가 다르다면, 다른 동사들은 대개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는 '걱정하지 말라'인데 이는 분명히 부정적인 명령, 즉 금지,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그리스어로 작업하고 있는데 그리스어로 금지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어의 부정형인 *may*이며 현재 명령형과 함께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불안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과거 가정법을 사용한 *may* 인데, 이는 심지어 불안해지기 시작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현재 명령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제로 일종의 불안 모드를 가정하거나 추정합니다. 불안을 멈추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여기 26절부터 30절까지의 특별한 원인들입니다. 특별한 원인들은 특수화, 일반화, 실증, 인과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물론 26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제 다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 개의 문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과 공중의 새들과 당신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말할 때, 너희는 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정도의 대비, 즉 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개념을 암시하며, 너희는 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새와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는 공중의 새들과 당신 사이의 대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중의 새에 관하여 그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그 단어는 대조, 일종의 온화한 대조, 일종의 양보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는 것과 얻는 것 사이에 대조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대조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해 공중의 새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그가 말하고 있는 요점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요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것이며,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암시된 요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이같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십시오.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실제로 인수론(argumentum a fortiori), 즉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의 논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얼마나 더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줄까요? 물론 28절에서 그는 여러분이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염려가 헛되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입증이며, 여기에서 이 명령에 대한 또 다른 입증이 염려되지 않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합리성에 대한 호소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런데 이것은 불안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그는 긍정적인 결과가 없을 때 고통스러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28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의복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발전시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28에서 30입니다. 이것은 27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행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당신과 대조되는 것은 들판의 백합입니다. 그는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하지 않는 일도 수고하거나 길쌈을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솔로몬을 능가하는 일종의 양보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중 하나라도 배열과 배열의 영광에 있어서 솔로몬보다 낫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실제로 영광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시적인 풀을 입히신다면 조건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살아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풀을 일시적으로 입히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서 언급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여러분, 이 연설과 관련하여 우리는 문맥적 연결 측면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 그리스어로 올리고피스토스, 그리고 작은 믿음과

불안 사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그것은 일종의 입증을 포함합니다.

즉, 불안은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약한 결과입니다. 이제 여기서 관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가 공중의 새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여기 그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식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동물계, 식물계, 공중의 새, 들판, 땅. 그래서 하늘과 땅. 이것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주목하세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거두고 거두는 일은 남자의 일이고, 수고하고 길쌈하는 것은 여자의 일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실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돌봄, 즉 그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이 총체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동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식물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하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땅에도 해당됩니다. 이런 것. 그리고 또한 여기 26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먹이를 준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들의 백합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실제로 사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름다움, 심지어는 영광, 사치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은 단순히 기본적인 생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물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창조물을 공급하시는 데 있어서 야김없이 베푸십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에 있는 최종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31절부터 33절까지 전체를 보면 여기에 실제로 두 가지 권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1절에는 부정적인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부정적인 권고로 시작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것은 25절의 금지 사항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리스어로 금지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명령형으로, 이는 어떤 일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류 가정법이 있는 may 입니다. 이는 시작하지도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현재 명령형과 함께 stop입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31절에는 금지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법과 함께 may를 사용합니다. 불안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담화입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종종 내부 대화라고 불리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는 마음 속으로 먹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이 걱정이 작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이러한 내부 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의해 생성됩니다. 우리는 걱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33절에는 이것의 보완물인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고 여기에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마도 기후상으로 문단이 당신이 해야 할 일, 즉 긍정적인 명령으로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하십시오.

긍정적인 명령에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권고와 약속이 포함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당신이 이것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더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권면, 즉 먼저 구하는 일과 관련하여,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31절의 부정적인 명령과 33절의 긍정적인 명령 사이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끼어 있는데, 이는 이방인과 너희의 대조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모든 것을 구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 즉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는 말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물론, 우리는 25절b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능력도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기꺼이 주신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고, 의지가 있으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불안에서 추구로 매우 미묘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불안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 이런 종류의 것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는 여기서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3절에서 이것을 볼 때 권고의 약속은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포함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실증 곧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선순위인지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인지 상대적인 우선순위인지가 문제입니다. 즉,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이니라. 상대적인 우선순위라면, 그래, 온갖 것을 구하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든지 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에는 온갖 것을 구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구하는 것에는 서열이 있어야 하고 구하는

것의 최우선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은 이것을 바탕으로 이 전체 단락의 주요 요점이 무엇인지, 그가 하위 주제 측면에서 어떻게 주요 요점을 전개하는지, 다른 단락에서는 어떻게 주요 요점을 전개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위 주제는 주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세부 사항이 이 단락의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는 물론 해석에 매우 명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찰은. 글썄요, 제 생각엔 그곳이 잠시 쉬어가기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면 해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관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관찰에서 발생하는 질문에 실제로 대답하는 과정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은 실제로 해석입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12, 세부 분석, 마태복음 6:25-33, 본문 개요, 문맥적 연결 및 논리적 레이블입니다.